

결혼이주여성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 및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 상호 영향 분석

임 양 미¹⁾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및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에 참여한 중학생(남학생: 585명, 여학생: 607명, 평균 연령: 12.96 ± .34) 및 외국인 어머니(각각 1,192명)의 4~6차년도(중1~중3) 자료에 대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안정적 경향을 보였다. 둘째,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에 있어, 이전 시점의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가 다음 시점의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의미 있게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 이전 시점의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다음 시점의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의미 있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요인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호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도모하고 부모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학교 측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적응,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1) 교신저자 :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E-mail: ym68@jj.ac.kr)

I. 서 론

중학교 시기는 사춘기와 함께 초등학교와 다른 교육환경 및 대인관계의 변화로 학교생활 적응이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대두된다. 학교에서의 성공적 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후 성인기의 사회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매우 중요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학교생활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취약집단으로 간주되어져 왔다(김준범, 박성훈, 2018).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국제결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9년 기준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보다 17만 2,930명이 감소한 613만 6,794명인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총 13만 7,22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2.3% 증가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발달적 변화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비 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높을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다문화가정 자녀 학업중단율은 1.03%로, 전체 학생 학업중단율(0.9%)에 비해 다소 높으며,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학교급은 중학교(1.34%)로, 전체 중학생 학업중단율(0.7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남인우, 2019).

다문화가정 학생은 주로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로 구성된 가족배경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어머니는 대체로 한국어능력이 미흡하고, 한국의 교육현실과 제제를 이해하

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녀와 문화적 역량의 간격이 커지면서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Basáñez, Dennis, Crano, Stacy, & Unger, 2014; Lau et al., 2005). 2018년에 수행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학령기 자녀를 둔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대부분(87.5%) 부모로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자녀의 학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48.0%), 교육비 부담(40.0%), 자녀의 게임 및 스마트폰·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갈등(25.6%), 자녀와의 대화 부족(15.6%), 학부모회 등 학교활동 참여의 어려움(15.2%) 순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더욱이 몇몇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는 비 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부모에 대한 신뢰, 의사소통 및 애착정도가 더 낮으며(남윤주, 이숙, 2009), 부모와의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그러나 많은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양시내, 김우영, 김영옥, 2013; 이채원, 박현선, 노연희, 이상균, 2013)으로써 이러한 어머니들의 양육수행과 관련된 속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환경 및 발달적 변화와 더불어, 가정의 문화적 배경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가정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 변

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및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수록 자녀가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김희영, 2015; 임양미, 2019; 한수연, 설영주, 성준향, 박용한, 2017). 또한 김혜미와 문혜진(2013)은 가족의 문화적 배경 보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수행이 다문화가정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보고하였다. 특히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학교활동 참여는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어져 왔다.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며, 부모로서의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스스로 믿는 신념을 의미하며(Coleman & Karraker, 2000),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로서의 능력과 문화적응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이다(Williams et al., 1987). 부모효능감은 비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이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김준범, 박성훈, 2018; 이지훈,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 2013; 임양미, 2019; 최혜영, 이수현, 2017).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는 부모가 학교와 소통하고, 교육 및 운영에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조정하는 행위로, 부모교육 및 교육활동 참여, 부모와 학교 간

의 의사소통을 포괄한다(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 2016).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법적·제도적 근거가 이루어지면서 장려되어져 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반 학부모 외, 다문화가정 및 특수아를 둔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상완, 2019). 여러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급과 상관없이 비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제시되었다(권순범, 김월섭, 진미정, 2017; 김세리 등, 2016; 연은모, 2018; 이엽지, 이채원, 2014).

한편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부모의 양육신념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자녀의 발달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영유아기 및 아동기에는 크지만,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자녀의 행동 및 발달 또한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carr & McCartney, 1983). 자녀의 발달에 있어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Sameroff와 Chandler(1975)의 발달의 상호교류 모델(transactional model)에서 제안되었다. 이 모델에 의하면, 개인의 발달 및 행동은 선천적·유전적·심리적·사회적 요인들 간의 상호교류의 결과로 이러한 요인들 각각의 영향력의 크기는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된다. 발달의 상호교류 모델은 영아의 선천적·유전적 특성이 주변 환경(특히, 부모)의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영아가 자신의 발달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 기원과 애착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으며(Holmbeck,

Jandasek, Sparks, Zukerman, & Zurenda, 2008), 청소년의 행동을 청소년과 부모 및 가족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의 결과로 인식한 여러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Fanti, Henrich, Brookmeyer, & Kuperminc, 2008; Thornberry, 1987; Xia, Fosco, & Feinberg, 2016). 특히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학업수행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규명되었다(예: Glatz & Buchanan, 2015; Núñez et al., 2017).

이상에서 언급한 부모효능감, 학교활동 참여 및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여러 과정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Glatz와 Buchanan(2015)은 Bandura(1986, 1997)의 사회인 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및 부모양육과 자녀행동 간의 상호적 영향에 관한 이론들(예: Kuczynski, 2003)을 토대로 부모효능감, 부모행동(예: 학교활동 참여)과 자녀의 행동 및 발달 간에 존재 가능한 독립적 교류과정을 제안하였다. 우선 부모효능감 주도과정(parental self-efficacy-driven process)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며 동시에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부모행동 주도과정(parent behavior-driven process)은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부모효능감을 높여게 되는 경로로, 부모행동이 부모효능감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세 번째로, 자녀주도 과정(child-driven process)은 자녀의 행동이 부모행동 및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부모양육에 대한 자녀의 영향을 강조한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은 횡단적·종단적 설계에 기반

하여 자녀의 발달적 산물로 학교생활적응 등을 채택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우선 부모효능감 주도과정을 지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효능감이 비 다문화가정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관련 역량(예: 생활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제시되었다(이지훈 등, 2013; 임소진, 전세경, 2016). 그리고 몇몇 연구들(최혜영, 이수현, 2017; Jones & Prinz, 2005)을 통해 부모효능감은 부모의 교육활동 지원 등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또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또한 김민선(2020)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활동 참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Dumka, Gonzales, Wheeler와 Millsap(2010)의 연구결과, 멕시코계 미국인 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긍정적인 통제행동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긍정적인 부모 양육행동 수행이 부모효능감 및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행동 주도과정은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높이며(Cheung, Lam, & Ngai, 2008),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부모효능감을 통해 비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규명한 몇몇 연구들(김세리 등, 2016; 임양미, 2019)에 의해서 지지되었다. 특히 김세리 등(2016)과 임양미(2019)의 연구에서는 모두 Bandura(1986, 1997)가 제안한 부모행동 → 자녀의 발달 →

부모효능감의 경로 대신 부모행동(예: 학교활동 참여)이 부모효능감 수준을 높여 자녀의 학교생활적응(부모행동 → 부모효능감 →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경로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세리 등(2016)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경로 외, 부모효능감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경로를 입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임양미(2019)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교참여와 부모효능감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자녀의 행동 및 발달이 부모효능감 및 부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주도 과정 또한 다수의 종단 연구들을 통해 그 경로가 지지되었다. 우선 Reitz, Deković, Meijer와 Engels(2006)의 연구결과, 청소년의 외현적·내현적 문제행동은 1년 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이와 동일하게 Giarz와 Buchanan(201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부모효능감 및 긍정적인 양육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녀가 부모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부모의 교육활동 지원 간의 종단적 관계를 규명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었는데, Núñez 등(2017)의 연구결과,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는 학교과제에 대해 더 많은 감독과 통제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

면 자녀의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는 학교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제시되었다(Eccles & Harold, 1996; Griffith, 1998; Keith et al., 1998). 또한 Dumont, Trautwein, Nagy와 Nagengast(2014)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시기의 낮은 학업 수행도는 자녀가 중학교가 된 이후의 학교과제에 대한 부모의 높은 통제수준을 예측하고, 초등학교 시기의 부모의 높은 통제수준은 중학교 시기 자녀의 낮은 학업 수행을 예측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적 영향이 입증되었다.

또한 몇몇 연구들을 통해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Slagt, Deković, de Haan, van den Akker와 Prinzie(2012)의 연구결과, 아동기의 외현적 문제행동은 6년 후 청소년기의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부정적인 훈육수행을 통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 또한 규명된 반면 동일한 시기 동안 부모효능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입증되지 못하였다. 반면 Giarz와 Buchanan(2015) 연구에서도 발달시기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청소년기 초기에는 부모효능감 및 긍정적인 양육수행이 자녀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가 제시된 반면 청소년기 중기부터 자녀의 문제행동이 부모효능감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만이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부모효능감, 양육행동 및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로를 규명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우선 국내의 경우 청소년

기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변인(부모효능감 및 부모행동)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부모효능감 또는 부모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부모효능감과 학교활동 참여 간의 관계를 탐색한 다수의 국내 연구들은 부모효능감이 학교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예: 김민선, 2020) 또는 학교활동 참여가 부모효능감(예: 김세리 등, 2016)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중 한 가지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두 가지 과정을 함께 고려하여, 부모효능감과 학교활동 참여 간의 상호 영향을 주는 과정을 규명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부모효능감과 학교활동 참여 간에는 상호적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한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규명한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양육과 자녀발달 간의 상호적 영향을 보고한 국외 연구들(예: Gatz & Buchanan, 2015; Slagter et al., 2012)의 결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즉, Slagter 등(2012)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자녀의 문제행동이 청소년기의 부모효능감 및 양육수행에 미치는 영향만 드러난 반면 Gatz와 Buchanan(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적 영향이 제시되었으며, 청소년기 중·후기로 갈수록 자녀가 부모에 미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중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 및 부모효능감 간에 존재하는 상호교류 관계가 중학교 시

기동안 어떻게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학교지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부모효능감, 학교활동 참여, 학교생활적응 간에 존재하는 상호 영향을 주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종단적 설계에 기반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하는 동일 변인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변인 간의 상호적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Hong, Yoo, You, & Wu, 2010).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정적인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 간의 상호 영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과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호 영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학교활동 참여와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호 영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이 조사는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및 그들의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패널이 구축되었으며 매년 개인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 중 중학교 1학년(Time 1), 중학교 2학년(Time 2) 및 중학교 3학년(Time 3)에 측정된 3회 자료를 사용하였다(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2020). 또한 본 연구는 조사에 참여한 대상 중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어머니로 대상을 제한하되, 3회에 걸쳐 측정된 본 연구의 변인들에 대해 2회 이상 결측치를 포함한 대상을 제외한 다문화 청소년 1,192명(남학생: 585명, 여학생: 607명, Time 1 시기 평균 연령: 12.96, 표준편차: .34)과 그들의 어머니 1,192명(Time 1 시기 평균 연령: 43.55, 표준편차: 5.19)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부모의 배경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조사대상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일본(37.25%)과 필리핀(25.59%)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46.56%) 및 전문대학 졸업(26.26%)이 가장 많았던 반면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52.52%) 및 중학교 졸업 이하(31.63%)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 어머니 한국 어능력은 평균 3.07($SD = .45$)로 점수범위(1~4 점)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44.2만원($SD = 119.25$)으

로 200~300만원 미만(37.58%)이 가장 많았다. 그 외, 아버지의 대부분(92.86%)은 취업상태로, 농림 및 어업(20.55%)과 장치, 기계 조작(15.68%) 종사자가 가장 많았던 반면 어머니의 경우 과반수(61.15%)가 직업을 가진 상태로 전문직(17.70%) 및 단순 노동(8.80%)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변인들 중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은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의 경우 자녀를 대상으로 측정되었다.

학교활동 참여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시, 연구진이 개발한 척도(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2020)를 사용하였다. 학교활동 참여 척도는 총 9개의 문항으로 답임교사와의 면담, 학부모 회의 및 수업·교육 참여, 학교행사 참여 등 학교활동 및 교육 참여와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는다’(1점), ‘1년에 1회’(2점), ‘1년에 2~3회’(3점), ‘1년에 4회 이상’(4점)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9~36점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학교활동 참여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 분석 시, 학교활동 참여 9문항을 무선 할당 문항묶음(random assignment parceling; 이보람, 박혜준, 2016;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을 통해 두개의 측정 변수로 산출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

표 1. 연구대상의 배경

항목	범주	빈도	(%)
어머니의 출신국가	중국(한국)	81	(6.80)
	중국(조선족)	223	(18.71)
	필리핀	305	(25.59)
	일본	444	(37.25)
	베트남	33	(2.77)
	기타(태국 등)	106	(8.89)
합 계		1,192	(100.00)
어머니의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34	(11.24)
	고등학교 졸업	555	(46.56)
	전문대학 졸업	313	(26.26)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190	(15.94)
	합 계	1,192	(100.00)
아버지의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77	(31.63)
	고등학교 졸업	626	(52.52)
	전문대학 졸업	76	(6.38)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113	(9.48)
	합 계	1,192	(100.00)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0	(3.36)
	100만원 ~ 200만원 미만	302	(25.34)
	200만원 ~ 300만원 미만	448	(37.58)
	300만원 ~ 400만원 미만	278	(23.32)
	400만원 ~ 500만원 미만	75	(6.29)
	500만원 이상	49	(4.11)
	합 계	1,192	(100.00)

식 모델에서 단일차원의 문항들을 몇 개의 측정변수(최소 2개 이상)로 묶어서 사용할 경우 오차를 감소시키며 자료의 정상성을 확보할 수 있다(Bandalos & Finney, 2001). 3회에 걸쳐 측정된 학교활동 참여의 내적합치도 계

수(Cronbach α)는 .86(Time 1), .87(Time 2), .88(Time 3)이었다.

부모효능감

외국인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모효능감은

Gibaud-Walston과 Wandersman(1978)의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번안한 신숙재(1997)의 척도를 다문화 청소년 페널조사 시,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수정한 척도(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2020)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한 인식(예: “나는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과 자녀행동에 대한 이해와 양육수행에 대한 자신감(“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을 측정한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1개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그대로 채점하였다. 부모효능감 척도의 점수범위는 9~45점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할수록 부모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분석 시, 부모효능감은 학교활동 참여와 동일하게 무선 할당 문항묶음을 통해 두 개의 측정변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3회에 걸쳐 측정된 학교활동 참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83(Time 1), .82(Time 2), .82(Time 3)이었다.

학교생활적응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민병수(199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다문화 청소년 페널조사 시,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2020). 이 척도는 교우관계(5문항), 학습활동(5문항), 교사관계(5문항)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15문항(예: “나는 모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

다.”,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몇몇 문항은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척도별 점수범위는 각각 5~20점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할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분석에서 학교생활적응의 지표로 교우관계, 학습활동, 교사관계를 투입하였다. 3회에 걸쳐 측정된 학교생활적응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87(Time 1), .87(Time 2), .87(Time 3)이었으며, 교우관계의 경우 .60(Time 1), .62(Time 2), .63(Time 3), 학습활동의 경우 .77(Time 1), .78(Time 2), .78(Time 3), 교사관계의 경우 .89(Time 1), .88(Time 2), .89(Time 3)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IBM SPSS 25.0과 IBM SPSS AMOS 25.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배경과 변인들의 일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교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의 추정방법은 결측치를 포함한 점을 고려하여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

선적으로 발생하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모두 기존 방식(예: 사례제거방식)보다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Arbuckle, 1996).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검증은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경로동일성(path invariance), 오차공분산 동일성(error covariance invariance) 검증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이 과정에서 동일성 기준이 충족된 최종 모델을 선정할 후, 이 모델의 자기회귀 계수와 교차지연 계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측정동일성은 각 시점에서 측정된 개념이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한 것인지 또는 시간에 따라 변화된 개념을 측정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측정변수의 요인 부하량을 측정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값으로 제약하여 검증한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이후 다음 단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 잠재변수의 자기회귀 계수 또는 잠재변수 간의 교차지연 계수의 동일성을 알아보는 경로동일성 검증을 실시한다. 즉, 이전 시점($t-1$)의 잠재변수가 현 시점(t)의 잠재변수에 미치는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 효과가 현 시점(t)의 잠재변수가 이후 시점($t+1$)의 잠재변수에 미치는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 효과와 동일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 계수를 측정시점과 상관없이 동일한 값으로 제약하여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 동일성 검증은 각 시점에서 설정된 오차간의 공분산을 동일하게 고정 시킴으로써 잠재변수의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 효과가 진정한 것인지 또는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모델을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 검증 절차를 반영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a1, b1, c1-c2는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한 것이며 대문자 A, B, C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기회귀 계수에 동일성 제약, D-I는 두 변인 간 교차지연 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 오차공분산 동일성 검증(J-I)을 수행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의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 검증은 동일성 제약을 단계적으로 가함으로써 동일성 제약이 가하기 이전 모델과 동일성 제약이 가한 이후 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이전 모델은 그 다음 모델에 대체된(nested) 것으로, 이전 모델의 χ^2 값과 다음 모델의 χ^2 값의 차이검증을 수행가능하나 χ^2 값은 사례 수에 민감하므로, 표본 수가 300 이상일 경우 p 값이 .05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같이 사례 수가 300 이상인 경우 사례 수에 민감하지 않은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동일성 검증을 차례로 수행하여 최종 모델을 선정하게 된다. CFI, TLI의 경우 .9 이상, RMSEA .08 이하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우종필, 2012),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의 CFI, TLI, RMSEA 지수가 이전 모델과 비교해 동일하거나 향상될 경우 또는 .01 보다 나빠지지 않을 경우, 동일성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다(Cheung & Rensvold, 2002; Vandenberg & 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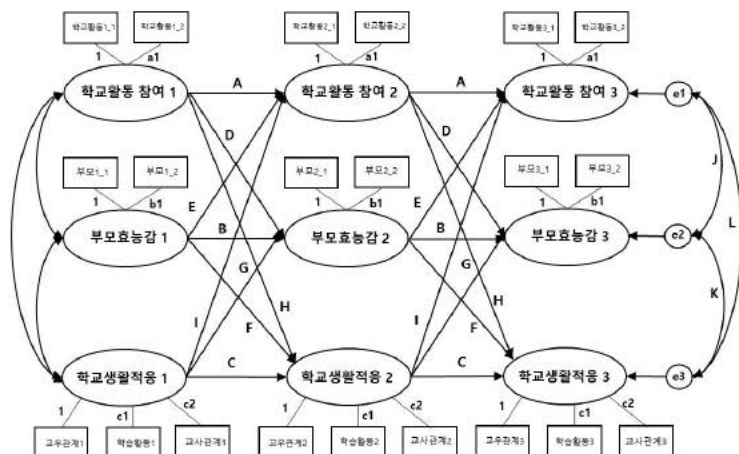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델

주. 측정오차와 중학교 2학년 시점(Time 2)의 잠재변수 간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은 그림에서 생략됨.
1, 2, 3은 각각 Time 1, Time 2, Time3에서 측정된 값을 의미함.

2000).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은 중학교 1학년(Time 1)부터 중학교 3학년(Time 3)에 이르기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교생활적응 지표인 교우관계, 학습활동, 교사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습활동 문항평균이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본 연구의 변인들이 자기회귀교차 지연모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다변량 정상분포(multivariate normality) 가정 충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관찰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관찰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값은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기준(왜도 절대값 < 2, 첨도 절대값 < 7은 정상성 가정)과 Kline(2011)의 기준(첨도 절대값 < 10은 정상성 가정)을 모두 충족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관찰변수들의 경우 다변량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변량 정상성을 AMOS 25.0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여러 관찰변수들의 다변량 정상성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다(Mardia's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N = 1,192)

변인	1	2	3.1	3.2	3.3	4	5	6.1	6.2	6.3	7	8	9.1	9.2	9.3
1															
2	.10**														
3.1	.08**	.11**													
3.2	.13**	.16**	.56**												
3.3	.08**	.10**	.50**	.47**											
4	.56**	.07**	.08**	.15**	.08**										
5	.12**	.54**	.16**	.17**	.10**	.11**									
6.1	.07**	.16**	.50**	.39**	.30**	.10**	.15**								
6.2	.10**	.15**	.38**	.60**	.31**	.17**	.17**	.51**							
6.3	.06**	.10**	.32**	.35**	.39**	.10**	.09**	.51**	.52**						
7	.57**	.10**	.07**	.11**	.07**	.63**	.13**	.10**	.16**	.11**					
8	.11**	.55**	.13**	.18**	.12**	.09**	.57**	.17**	.17**	.13**	.13**				
9.1	.05**	.13**	.42**	.34**	.26**	.09**	.14**	.55**	.35**	.36**	.08**	.18**			
9.2	.14**	.16**	.36**	.55**	.31**	.15**	.16**	.44**	.62**	.35**	.15**	.20**	.52**		
9.3	.08**	.12**	.32**	.31**	.37**	.11**	.12**	.36**	.34**	.47**	.12**	.16**	.49**	.44**	
평균	1.42	3.61	3.17	2.88	3.10	1.33	3.58	3.18	2.87	3.08	1.30	3.57	3.18	2.88	3.11
표준편차	.41	.52	.41	.53	.56	.39	.42	.39	.52	.56	.38	.51	.37	.51	.55
왜도	1.09	-.27	.01	-.07	-.22	1.52	-.18	.05	-.00	-.15	1.63	-.04	.22	-.13	-.28
첨도	.90	.84	.02	.14	.32	2.23	.50	.22	.03	.18	2.63	.14	.23	.33	.50

주. 1: 학교활동 참여(1차), 2: 부모효능감(1차), 3.1: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1차), 3.2: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1차), 3.3: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1차), 4: 학교활동 참여(2차), 5: 부모효능감(2차), 6.1: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2차), 6.2: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2차), 6.3: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2차), 7: 학교활동 참여(3차), 8: 부모효능감(3차), 9.1: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3차), 9.2: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3차), 9.3: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3차). ** $p < .01$.

coefficient of multivariate kurtosis = 98.210, C.R. = 54.548). 다변량 정상성이 결여된 경우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할 때, 계수의 유의성을 결정하는 임계치를 상향 편향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소희, 2013).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량 정상성과 다변량 정상성은 모두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일반량 정상성에 문제가 없으면 다변량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배병렬, 2011; 우종필, 2012). 더욱이 표본 크기가 120 이상일 경우 다변량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최대우도법을 사용할 때 추정된 모수가 신뢰로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량 정상성이 가정되고 표본 크기가 120 이상으로, 모수 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Time 1과 Time 2, 그리고 Time 2와 Time 3에서 측정된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 학습활동, 교사관계)은 모두 각각의 동일변인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전 시점(Time 1 또는 Time 2)에 측정된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는 이후 시점(Time 2 또는 Time 3)에 측정된 부모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으며, 이전 시점(Time 1 또는 Time 2)에 측정된 학교활동 참여 또는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점(Time 2 또는 Time 3)에 측정된 학교생활적응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제시되었다.

2.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검증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자기회귀 효과)과 변인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 영향(교차지연 효과)을 규명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변인들 내의 자기회귀 효과 및 변인들 간의 교차지연 효과를 보고하기 위한 최종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측정동일성(Model 2~Model 4), 경로동일성(Model 5~Model 13), 오차공분산 동일성(Model 14~Model 16) 검증을 아래와 같이 16개의 모델을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이전 모델의 동일성 제약은 이후 모델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었다.

- Model 1: 어떠한 동일성 제약도 가하지 않는 기본 모델(기저모델)
- Model 2: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학교활동 참여 측정변수 요인부하량(a1)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
- Model 3: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부모효능감 측정변수 요인부하량(b1)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
- Model 4: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학교생활적응 측정변수 요인부하량(c1, c2)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
- Model 5: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잠재변수 학교활동 참여 자기회귀 계수에 동일성 제약(A)을 가한 모델

- Model 6: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잠재변수 부모효능감 자기회귀 계수에 동일성 제약(B)을 가한 모델
- Model 7: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잠재변수 학교생활적응 자기회귀 계수에 동일성 제약(C)을 가한 모델
- Model 8: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잠재변수 부모효능감에 대한 학교활동 참여의 교차지연 계수에 동일성 제약(D)을 가한 모델
- Model 9: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잠재변수 학교활동 참여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교차지연 계수에 동일성 제약(E)을 가한 모델
- Model 10: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잠재변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교차지연 계수에 동일성 제약(F)을 가한 모델
- Model 11: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잠재변수 부모효능감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의 교차지연 계수에 동일성 제약(G)을 가한 모델
- Model 12: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잠재변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학교활동 참여의 교차지연 계수에 동일성 제약(H)을 가한 모델
- Model 13: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잠재변수 학교활동 참여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의 교차지연 계수에 동일성 제약(I)을 가한 모델
- Model 14: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 간의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J)을 가한 모델

- Model 15: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부모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K)을 가한 모델
- Model 16: 각 시기별(Time 1, Time 2, Time 3) 학교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L)을 가한 모델

구체적으로, 이상의 16개의 모델 중 최종 모델을 찾기 위해, 순차적으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되, 이전 모델과 동일성 제약이 추가된 이후 모델의 χ^2 차이 값과 더불어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비교(ΔCFI , ΔTLI , $\Delta RMSEA$)하여 주로 적합도 지수가 동일성 성립 기준에 부합될 경우 두 모델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3 참조). 우선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적응 측정변수 요인 부하량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Model 2에서 Model 4까지 순차적으로 이전 모델과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Model 1 vs. Model 2, Model 2 vs. Model 3, Model 3 vs. Model 4), χ^2 차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TLI는 점차 상승한 반면 CFI는 .01 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거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RMSEA는 향상되거나 동일 수준을 유지하였으므로, 세 변인의 측정동일성이 3개의 시점에서 모두 성립되었다. 다음으로, 각 변인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자기회귀 효과)을 검증한 Model 5에서 Model 7까지의 적합도 지수를 이전 모델과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Model 4 vs. Model 5, Model 5 vs. Model 6, Model 6 vs. Model 7), Model 4와 Model 5, Model 5와 Model 6의 χ^2 차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전반적으로 CFI, TLI 및 RMSEA는 동일한 수준

표 3.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의 동일성 검증

(N = 1,192)

Model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Delta DF)$	ΔCFI	ΔTLI	$\Delta RMSEA$
Model 1	1363.39	162	.904	.865	.079	-	-	-	-
Model 2	1367.59	164	.903	.866	.078	4.2(2)	-.001	.001	-.001
Model 3	1373.02	166	.903	.868	.078	5.43(2)	0	.002	0
Model 4	1376.88	170	.903	.871	.077	3.86(4)	0	.003	-.001
Model 5	1383.00	171	.903	.871	.076	6.12(1)*	0	0	-.001
Model 6	1399.28	172	.903	.870	.077	16.28(1)*	0	-.001	.001
Model 7	1401.67	173	.902	.870	.077	2.39(1)	-.001	0	0
Model 8	1406.20	174	.902	.870	.077	4.53(1)*	0	0	0
Model 9	1413.22	175	.902	.870	.077	7.02(1)*	0	0	0
Model 10	1414.32	176	.902	.871	.077	1.1(1)	0	.001	0
Model 11	1420.74	177	.902	.871	.077	6.42(1)*	0	0	0
Model 12	1420.76	178	.902	.872	.077	0.02(1)	0	.001	0
Model 13	1420.91	179	.903	.873	.076	0.15(1)	.001	.001	-.001
Model 14	1420.96	180	.902	.873	.076	0.05(1)	-.001	0	0
Model 15	1423.17	181	.902	.874	.076	2.21(1)	0	.001	0
Model 16	1428.81	182	.902	.874	.076	5.64(1)*	0	0	0

을 유지하거나 .01 보다 크게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자기회귀 계수의 동일성이 모두 입증되었다.

또한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 간의 교차지연 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Model 8과 Model 9의 경우 Model 8은 Model 7과 비교할 경우 그리고 Model 9는 Model 8과 비교할 경우 χ^2 차이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CFI, TLI, RMSEA가 모두 동일 수준을 유지하였으므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모효능감과 학교활동 참여 간의 교차지연 효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 학교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교차지연 계수에 대해 순차적으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Model 10에서 Model 13까지 이전 모델과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Model 10과 Model 11의 χ^2 차이 값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반면 다른 경우(Model 9 vs. Model 10, Model 11 vs. Model 12, Model 12 vs. Model 13)는 모두 χ^2 차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Model 10에서 Model 13까지 각각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CFI, TLI, RMSEA는 모두 동일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모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교차지연 효과의 동일성과 학교생활 참여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교차지연 효과의 동일성이 모두 지지되

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번
인 간의 오차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수행한
Model 14, Model 15, Model 16에 대해 이전 모
델과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을 때(Model 13
vs. Model 14, Model 14 vs. Model 15, Model 15
vs. Model 16), Model 15와 Model 16을 비교했을
때를 제외하고, χ^2 차이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ΔCFI , ΔTLI , $\Delta RMSEA$ 결
과, 모두 동일성 채택 기준을 충족시켰으므로
본 연구 변인들의 자기회귀 효과 및 교차지연
효과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동일성 기준이 모두 충족된 Model
16이 최종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이 모델의
자기회귀 계수 및 교차지연 계수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최종 모델의 적합도 지
수는 대체로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 비록,
TLI 수치가 .874로 앞서 제시한 적합도 기준

(.90)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인접한 수치이며,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가 .90 이상, RMSEA가
.08 이하로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전반적으
로 본 연구모델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
이었다. 또한 이전 시점의 학교활동 참여, 부
모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은 이후 시점의 각각
의 동일 변수(학교활동 참여: $\beta_{Time1-Time2} = .70$,
 $\beta_{Time2-Time3} = .72$, $p < .001$; 부모효능감: $\beta_{Time1-Time2} = .68$, $\beta_{Time2-Time3} = .66$, $p < .001$; 학
교생활적응: $\beta_{Time1-Time2} = .81$, $\beta_{Time2-Time3} = .86$,
 $p < .001$)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
감, 학교생활적응은 모두 이후 시점 동일 변
수에 대해 .60 이상의 영향력을 미쳤으므로,
시간에 따른 동일 변인들 수준의 안정성은 대
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전 시점의 학교활동 참여는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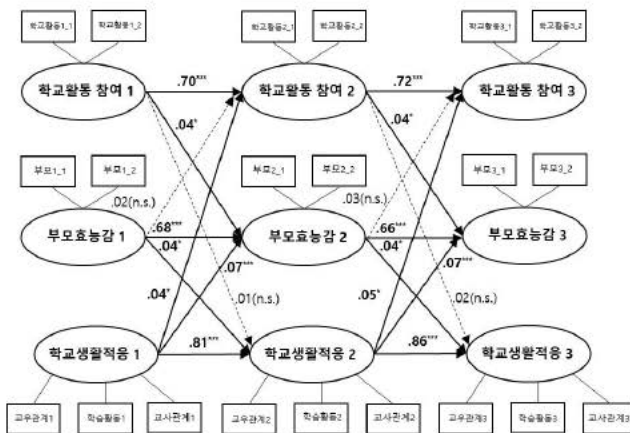


그림 2.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 영향 관계($N = 1,132$)

주. 경로 위에 표시된 수는 표준화 계수임. * $p < .05$, *** $p < .001$.

이후 시점의 부모효능감($\beta_{Time1-Time2} = .04$, $\beta_{Time2-Time3} = .04$, $p < .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이전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점의 학교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전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점의 학교생활적응($\beta_{Time1-Time2} = .04$, $\beta_{Time2-Time3} = .04$, $p < .05$)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전 시점의 학교생활적응 또한 이후 시점의 부모효능감($\beta_{Time1-Time2} = .07$, $\beta_{Time2-Time3} = .07$,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전 시점의 학교활동 참여는 이후 시점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이전 시점의 학교생활적응은 이후 시점의 학교활동 참여($\beta_{Time1-Time2} = .04$, $\beta_{Time2-Time3} = .05$, $p < .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전 시점의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는 이후 시점의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점의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제시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이후 시점의 외국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및 학교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및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교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

의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분석 결과, 이전 시점의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이후 시점의 동일변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인을 수준은 안정적 경향을 보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에서 자기회귀 효과의 안정성은 변인을 수준에 존재하는 개인차의 안정성을 의미한다(Seig & Little, 2012).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Dumka et al., 2010; Hayakawa, Englund, Warner-Richter, & Reynolds, 2013; Hong et al., 2010) 및 학교생활적응(신용태, 황순택, 2016)의 안정성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

둘째, 본 연구의 학교활동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자기회귀 효과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특정 변인들 간의 교차지연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제시되었다. 우선 이전 시점의 학교활동 참여가 이후 시점의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교 시기 동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제시된 반면 이전 시점의 부모효능감이 이후 시점의 학교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활동 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한 여러 연구들(김세리 등, 2016; 임양미, 2019; Cheung et al., 2008)의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본 연구와 동일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중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외국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교육 참여를 예측한다고 보고한 김민선(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와 김민선

(2020)의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연구설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김민선(2020)의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종단적 연구설계에 기반하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효능감이 학교교육 참여에 미치는 일방적 경로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부모효능감과 학교활동 참여의 상호 영향을 검증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전 시점의 부모효능감이 학교활동 참여에 미치는 경로가 보고되지 않은 결과는 중학교 시기의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중학교 시기에 접어든 청소년은 사춘기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변화와 함께 초등학교와 다른 교육환경 및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초등학교와 다른 교육적 지원과 자녀양육 수행이 요구되면서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이 부모효능감은 자녀가 청소년기 초기부터 중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llenski & Cook, 1982). 그러므로 초등학교까지 부모역할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부모라도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변화된 교육환경 및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습득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보가 많을수록 이 시기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다른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한국 어머니에 비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낮으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 및 교육적 지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획득의 요구가 더 높다. 따라서 중학교 시기에 접

어들면서 변화된 교육환경 및 적절한 양육지원에 대한 정보와 지식획득을 위한 지속적인 학교활동 참여가 이 시기의 외국인 어머니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론된다.

더욱이 본 연구와 달리 동일한 청소년기에 부모효능감이 부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여러 연구들(Dumka et al., 2010; Glaz & Buchanan, 2015)은 대체로 전반적인 양육행동(반응, 통제, 수용 등)을 부모행동의 지표로 채택한 반면 본 연구는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학업에 대한 압력이 가중화되고 학교생활적응이 자녀에게 주요한 발달과업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과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활동 참여를 부모행동의 지표로 삼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부모행동과 부모효능감 간의 상호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며,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는 부모효능감이 아닌 다른 요인(예: 자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시사된다.

셋째, 외국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호 영향은 중학교 3년 동안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의 외국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점의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의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이후 시점의 외국인 어머니 부모효능감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외국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비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횡단적 설계에 기반해 부

부모효능감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임양미(2019), 이지훈 등(20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라틴계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효능감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보고한 Dumka 등(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관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 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을 자녀가 '관찰'(observing)하는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어려운 상황에서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발달시키며 결국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 Dumka 등(2010)의 설명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외국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녀의 외현적 문제행동(예: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반사회적 행동,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이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수준을 저하하는 것으로 보고한 Giarz와 Buchanan(2015) 및 Giarz, Starrin과 Kerr(2011)의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호 영향이 중학교 1학년 부터 3학년까지 일관되게 보고된 반면 Giarz와 Buchanan(2015)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주로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난 반면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청소년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만 보고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자녀의 발달 지표가 중학교 시기의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학교생활적응인 반면 Giarz와 Buchanan(2015)의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제기한 바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

면서 더 많이 나타나며, 개인차가 크게 존재하는 외현적 문제행동(부모에 대한 불복종, 학교비행, 반사회적 행동)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행동이 청소년기 중·후기에 이르면서,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해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넷째,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호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입증되었다. 즉,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 경우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 수준은 높아졌으며,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의 원인으로 자녀요인이 제시되었다. 우선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본 연구결과는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부모가 학교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 다수의 국외 연구들(Eccles & Harold, 1996; Griffith, 1998; Keith et al., 1998)을 지지한다. 반면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김세리 등, 2016; 연은모, 2018; 이엄지, 이재원, 2014)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 기존의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규명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횡단적 연구설계인 반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가 1년 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규

명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가 단기간 동안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가 최소한 1년 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지속적인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교활동 참여 자체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효능감 또는 다른 교육지원 활동(예: 정서적 지원 및 학업 지원)이 오히려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할 것이라는 점이 제시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중학교 1학년이 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권순범 등, 2017)도 존재함으로써 향후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규명하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를 통해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가 이후의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효능감이 이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이후의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및 학교생활 참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증명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영향이 중학교 시기에 일관되게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행동 주도과정(양육행동 → 부모효능감 → 자녀발달)과 자녀 주도과정(자녀발달 → 부모효능감 또는 양육행동)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다문

화가정의 부모참여 및 교육을 실시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학교 학교현장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부모효능감 및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수준은 평균 1.30~1.42점(4점 척도)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더욱이 이아민과 이채원(2017)의 연구를 통해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가 다른 학부모의 뒷세와 교육열로 인해 오히려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제기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학교모임 및 활동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학교생활지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모범적인 선배학생의 어머니를 멘토로 소개시켜주거나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자녀의 학교급별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학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현재 몇몇 지자체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는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 대인관계 및 학습활동 등 주로 어느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하는지 파악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개별지도, 부모 상담을 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소집단으로 학습 및 체험활동과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교활동 참여 또는 양육행동, 부모효능감의 종단적 상호교류 관계에 대한 탐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본 연구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 → 부모효능감 →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규명한 반면 학교생활적응이 이후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경로를 연속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고등학교까지 시기를 확대해서 이러한 경로를 지속적으로 규명해 보는 접근도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성장한 문화적 환경에 따라 한국에서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박순용, 오덕렬, 2012; 이교일, 2011)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별로 변인들 간의 상호교류 관계 양상을 비교해 보는 접근도 추후 부모교육 및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통계. 진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권순범, 김월섭, 진미경 (2017). 학부모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2), 119-138.
- 김민경, 김희영 (2015).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대처전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2), 367-385.
- 김민선 (2020). 잠재성장도형을 적용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와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7(1), 49-75.
- 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 (2016). 학부모 학교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4), 139-154.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범, 박성훈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학*, 41, 77-100.
- 김혜미, 문혜진 (20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한국인 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7-31.
- 남윤주, 이숙 (2009).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357-367.
- 남인우 (2019. 11. 25). 가정·언어·소통교육 '삼중고' 자문화 중학생 학업중단 2배.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26016010&wlog_tag3=naver에서 2020년

- 4월 7일 인출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완 (2019). 학부모 참여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5(4), 189-211.
- 박순용, 오덕렬 (2012). 취학연령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문화 적응 연구-필리핀인 및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5(1), 177-197.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정람.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용태, 황순택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와 학교생활 적응 간의 인과관계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8(2), 1-19.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양시내, 김우영, 김영옥 (2013).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 이야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71-94.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연은모 (2018). 부모의 교육참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진로성숙도, 인터넷 중독,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잠재평균분석과 다집단 경로계수차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433-456.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Amos 4.0-20.0 공용).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이교일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1(1), 181-217.
- 이보람, 박해준 (201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검증. *아동학회지*, 37(6), 5-17.
- 이소희 (2013). 초등학생의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아민, 이채원 (2017). 지역사회참여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5, 237-264.
- 이엄지, 이채원 (2014).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부모자녀 유대감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9, 433-455.
- 이지훈,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 (2013).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1), 13-25.
- 이채원, 박현선, 노연희, 이상균 (2013).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역할 찾아가기 과정-근거이론적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41, 251-279.
- 임소진, 전세경 (2016).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우울감, 부모 교육참여가 자녀의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

- 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8(4), 123-137.
- 임양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참여와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8(6), 615-627.
- 최혜영, 이수현 (2017).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에서 교육지원활동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1), 81-92.
-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2020).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 세종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수연, 설염주, 성준향, 박용한 (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29(1), 1-23.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 243-27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llenski, C. B., & Cook, A. S. (1982).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competence in managing selected parenting tasks.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31(4), 489 - 494
- Bandalos, D. L., & Finney, S. J. (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69-29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Freeman.
- Basáñez, T., Dennis, J. M., Crano, W., Stacy, A., & Unger, J. B. (2014). Measuring acculturation gap conflicts among Hispanics: Implications for psycho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35(13), 1727-1753.
- Cheung, C., & Lam, C., & Ngai, S. S. (2008). Help from the parent-teacher association to parenting efficacy: Beyond social status and informal social capital.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7(3), 1134-1152.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49(1), 13-24.
- Dumka, L. E., Gonzales, N. A., Wheeler, L. A., & Millsap, R. E. (2010).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over time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 24(5), 522-531.
- Dumont, H., Trautwein, U., Nagy, G., & Nagengast, B. (2014). Quality of parental homework involvement: Predictors and reciprocal relations with academic functioning in the reading domai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6*(1), 144-161.
- Eccles, J. S., & Harold, R. D. (1996). Family Involvement in children's and adolescents' schooling. In A. Booth & J. F. Dunn (Eds.), *Family-school links: How do they affect educational outcomes?* (pp.3-3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anti, K. A., Henrich, C. C., Brookmeyer, K. A., & Kuperminc, G. P. (2008). Toward a transactional model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2), 252-276.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86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Glaes, T., & Buchanan, C. M. (2015). Over-time associations among parental self-efficacy, promotive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s'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9*(3), 427-437.
- Glaes, T., Stattin, H., & Kerr, M. (2011). Parents' reactions to youths' hyperactivity, impulsivity, and attention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8), 1125-1135.
- Griffith, J. (1998). The relation of school structure and social environment to parent involvement in elementary school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9*(1), 53-80.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Hayakawa, M., Englund, M. M., Warner-Richter, M. N., & Reynolds, A. J. (2013). The longitudinal process of early parent involvement on student achievement: A path analysis. *NHSA Dialog, 16*(1), 103-126.
- Holmbeck, G. N., Jandasek, B., Sparks, C., Zukerman, J., & Zarenda, L. (2008). Theoretical foundations of developmental-behavioral pediatrics. In M. L. Wolraich, D. D. Drotar, P. H. Dworkin, & E. C. Perrin (Eds.), *Developmental-behavioral pediatrics: Evidence and practice* (pp. 13-46). Philadelphia, PA: Mosby Elsevier.
- Hong, S., Yoo, S., You, S., & Wu, C. (2010).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8*(4), 419-439.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 Keith, T. Z., Keith, P. B., Quirk, K. J., Spelduro, J., Santillo, S., & Killings, S. (1998).

-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high school grad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cross gender and ethnic group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3), 335-363.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Y: Guilford.
- Kuczynski, L. (2003). Beyond bidirectionality: Bilateral conceptual frameworks for understanding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In L. Kuczynski (Ed.),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pp. 3-24).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Lau, A. S., McCabe, K. M., Yeh, M., Garland, A. F., Wood, P. A., & Hough, R. L. (2005). The acculturation gap-distress hypothesis among high-risk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3), 367-375.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 Integrative Journal, 9*(2), 151-173.
- Núñez, J. C., Epstein, J. L., Suárez, N., Rosário, P., Vallejo, G., & Valle, A. (2017). How do student prior achievement and homework behaviors relate to perceived parental involvement in homework? *Frontiers in Psychology, 8*:1217.
- Reitz, E., Deković, M., Meijer, A. M., & Engels, R. C. M. E. (2006).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ing, bes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Testing bidirectional effec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6*(3), 272-295.
- Sameroff, A. J., & Chandler, M. J. (1975). Reproductive risk and the continuum of caretaking causality. In F. D. Horowitz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4, pp. 187-244).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arr, S., & McCartney, K. (1983). How people make their own environments: A theory of genotype → environment effects. *Child Development, 54*(2), 424-435.
- Selig, J. P., & Little, T. D. (2012). Autoregressive and cross-lagged panel analysis for longitudinal data. In B. Laursen, T. D. Little, & N. A. Card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research methods* (pp. 265-278).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Slagt, M., Deković, M., de Haan, A. D., van den Akker, A. L., & Prinzie, P. (2012).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sense of competence and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8*(6), 1554-1562.
- Thorn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4), 863-891.
-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4-7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Williams, T. M., Joy, L. A., Travis, L., Gorowiec, A., Blum-Steele, M., Aiken, L. S., Painter, S. L., & Davidson, S. M. (1987). Transition to motherhood: A longitudinal stud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8(3), 251-265.
- Xia, M., Fosco, G. M., & Feinberg, M. E. (2016). Examining reciprocal influences among family climate, school attachment, and academic self-regulation: Implications for school succes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4), 442-452.
- 1 차원고접수 : 2020. 04. 10.
수정원고접수 : 2020. 06. 15.
최종게재결정 : 2020. 06. 17.

An analysis of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s school involvement, parenting self-efficacy, and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t middle school

Lim, Yangmi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s school involvement, parenting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 children. I used three-wave longitudinal data-measured at the first grade, the second grade, and the third grade of middle school-of 1,192 adolescents and foreign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conducted by NYPI.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the levels of foreign mothers' school involvement, parenting self-efficacy,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ended to be stable over time. Further, the positive effect of foreign mothers' school involvement on parenting self-efficacy was only significant, but not vice versa. Thirdly,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foreig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were all significant. Additionally, the positive effect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on foreign mothers' school involvement was only significant, but not vice versa. By identifying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s among foreign mothers' school involvement, parenting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 children,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activate foreign mothers' school involvement and the need for schools to offer continuous guidance and counseling in order to promote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o increase parenting self-efficacy.

Key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school involvement, parenting self-efficacy, school adjustment,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